



## 회복의 읽기를 통한 여호수아 헤렘 본문의 윤리적 해석\*

방기민(강남대)

### 1. 문제 제기

동 지중해 지역에서 약 기원전 1,200년 전후부터 시작하여 지역에 따라 300년간 지속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암흑시대(the Dark Age)는 동 지중해 지역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히타이트는 갑자기 멸망하여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다. 에게해 연안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기후난민처럼 기근을 피해, 새로운 삶을 찾아, 이집트, 레반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혹은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침공하였다. 그 와중에 레반트 해변가의 도시는 파괴되지 않은 도시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

\* 본 논문은 필자의 선행연구(방기민, “하나님의 싸움’ 모티프 연구로의 초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집 (2020), 7-40)에서 간략히 소개한 ‘야훼의 성전’ 이 가진 해석사적 문제점(pp.19-20, 31)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이다.

이집트는 바다민족의 침입을 간신히 격퇴하기는 했지만 그 뒤로 쇠락했다.<sup>1</sup> 이 시기에 기근을 피해 사람들이 동 지중해 지역을 유랑/이주하거나 다른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는 아마도 후대에 호메로스가 서사시로 지어불렀던 오뒷세이아, 구약 성서의 출애굽과 정복 이야기, 사사기, 룯기 등 오늘날까지 전해내려오는 글이나 고대 비문자료인 메르네프타 석비, 람세스 3세 시절의 메디넷 하부의 기록, 우가릿 최후의 토관들 등의 1차 문헌을 바탕으로 파악 및 재구성할 수 있다.<sup>2</sup>

이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을 여호수아서 속 ‘헤렘’ 개념은 현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개념에 속한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진멸하는, 즉 오늘날 반인류적 행위로 비난받는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혹은 제노사이드(genocide)<sup>3</sup>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가

- 
- 1 Eric H. Cline, *1177 B.C. The Year Civilization Collaps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2 필자는 만약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면 15세기나 13세기 중엽이 아닌 13세기 말-12세기 초, 즉 기원전 1,200년 전후가 아닌가 추정한다. 13세기 중엽은 람세스 2세(기원전 1279-1213)가 가나안지역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시기라서 이 시기의 가나안 이주는 출애굽이 아니라 이집트 내에서 지역이동이 된다. 반면 13세기말은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1) 메르네프타 석비에서 메르네프타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격퇴하는 등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도시나 국가가 아닌 ‘민족’으로서 언급되며 이스라엘 민족을 씌 하거나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난다. 때문에 메르네프타의 기록을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게다가 메르네프타는 전투 이후 곧 사망하였고 곧이어 람세스 3세가 즉위하기까지 중간기로 불리는 혼란기를 겪었다는 점에서 이집트의 실제 승리여부는 불확실하다. (2) 구약 성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긴 광야방랑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땅에 진입했을 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레반트 지역에 정착해 있었음을 말한다. 에릭 클라인(Eric Cline) 등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블레셋 사람들이 레반트로 이주 정착한 시기는 1,177년 경으로 추정됨을 고려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재정착한 시기는 그 이후였을 가능성이 있다. (3) 12세기는 이집트가 가나안 지역 통제권을 상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것이 실현가능한 시점이다. (4) 가나안 중앙산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증거도 기존의 출애굽 연대로 제안되었던 13세기가 아닌 12세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사건기록의 역사성을 위해서 13세기말 출애굽, 12세기 초 가나안 정착설에 더 큰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 3 인종청소나 제노사이드는 비슷한 개념으로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강제적으로 배제하고 말살하려는 행위나 정책”을 통칭하는 단어이다. 유엔의 위원회에 따르면 “폭력과 공포 수단을 동원하여 특정 지역에서 민족적·종교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을 제거하려는 정책”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두산백과, “인종 청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6205&cid=40942&categoryId=33368>)

나안 정착시기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진멸하던 행위는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먹을 것을 두고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회현상일 것이다. 먹을 것을 두고 경쟁하는 다른 부족이나 집단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헤렘’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의 정복 본문과 이의 전통적인 해석은 여러 신학적인, 성서해석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구약성서는 이후 세계 속의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의 삶과 윤리에 큰 영향을 끼치며 비종교인들에게도 보편타당한 원칙을 담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여지곤 하기 때문이다. 서구권의 강대국들이 십자군 전쟁, 신대륙 발견과 정복, 오늘날의 이슬람권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신의 이름으로 수행한 전쟁과 식민지배, 특히 적들을 연민의 마음 없이 학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던 신학의 토대가 된 것이 주로 여호수아서<sup>4</sup>의 본문과 해석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sup>5</sup>

본 논문에서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 장면 중에 소개되는 타민족과의 ‘하나님의 싸움’ 주제를 어떻게 현대인들이 소화해낼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려

4 물론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말렉 학살(삼상 15)도 타민족을 연민의 마음 없이 학살하는 내용을 다루는 본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사무엘상 15장을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 까닭은 아말렉 학살 본문은 본 논문에서 제안할 해결 방법을 적용하기에 알맞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말렉과의 싸움은 출애굽 시절 아말렉이 시작한 적대관계(출 17:8-16)에 대한 대응 혹은 보복으로서 정당방위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런 과거 악연도 없이 초기 이스라엘이 무차별적 학살을 감행한 것으로 기록된 여리고 등의 인종청소보다는 적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흥미롭게도 몇몇 타르굼이 보여주는 후대의 해석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적대관계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개에까지 이어진다. 에스더서의 제1타르굼(Targum Rishon Esther)과 제2타르굼(Targum Sheni Esther)에 덧붙은 하만의 족보는 아말렉의 왕 아카과 궁극적으로는 야곱의 형제 에서까지 올라간다.

5 최근의 주석들은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Robert L. Hubbard, *Joshua*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9), 21; L. Daniel Hawk, *Joshua* (Berit Olam: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0), xii. 크리치(Jerome F. D. Creach)에 따르면 여호수아서가 가진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성서일과(The Revised Lectionary)는 여호수아서로부터 아주 적은 분량만을 골라서 포함하며, 전쟁 이야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여호수아서가 현대인들에게 주는 불편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한다. 제롬 F. D. 크리치, 「여호수아」(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25-26.

고 한다. 성경의 최종본문을 존중하면서도 윤리적인 해석방법을 찾기 위한 시도로서 본 소고에서는 ‘여호수아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려간다. 여호수아서만을 봤을 때 헤렘은 하나님에 의해 지시되거나 명령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것임일 수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시적 관점을 바탕으로 여호수아서의 각 본문을 관찰하는 내용을 2장에서 다룬 뒤에, 구약학 연구자로서 무시할 수 없는 통시적 접근에 따라서도 이 문제가 극복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도 3장에서 간략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의 접근을 통하여 구약성서 독자들은 여호수아 정복이야기를 보다 새롭게, 그리고 종합적이며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여호수아서의 정경적 관찰

### 2.1. 새롭게 읽기 위한 토대

현대 해석학(Contemporary Hermeneutics)<sup>7</sup>은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여러 관점이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성서를 새롭게 해석해보려는 노력인데, 각 성경 본문이 가지는 가능성(Possibilities), 도전(Challenges) 혹은 내재된 문제점(Prob-

6 홍국평은 그의 논문에서 성서학 내에 존재하는 세 가지 다른 연구방식이 존재함을 논하였는데, 하나는 최종본문(본문 중심)에, 다른 하나는 최종본문 이전(저자 중심)에, 나머지 하나는 최종본문 이후의 독자(독자 중심)에 관심을 갖는 연구 방법이다. 고대에 쓰여진 당시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는 연구 방법은 최종본문과 최종본문 이전에 관심을 갖는 방법이다. 다른 한편 최종본문 이후의 독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연구방법은 성경 본문이 오늘날의 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한 관심을 가진다. 홍국평에 따르면 세 가지 성경 읽기 방법은 이론적으로 공존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읽기 방법 간에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국평, “책임 있는 해석학을 위한 제언”, 『Canon&Culture』 6/2 (2012), 109-135.

7 이 논문에서 말하는 현대해석학은 독일어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의와 다르다. 독일어권에서 현대해석학은 슐라이어마허에서 시작하여 가다머 및 리피르로 이어지는 철학적 성서해석 전통을 말하지만, 본 논문에서 현대해석학은 현대적 이슈/관점을 바탕으로 성서를 새롭게 읽어내려는 노력을 지칭한다.

lems)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성경 본문과 현대적 관점의 관계에 관하여, 성서해석자의 입장은 보통 네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sup>8</sup>

(1) 무관심-주로 고대 근동학을 바탕으로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종종 취하는 입장으로서 성경을 고대 근동의 문서 중 하나로 보면서, 고대 근동인들이 현대의 당면과제들을 몰랐던 것처럼 성경 기자들이 오늘날의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을 주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보는 관점. 이 경우 고대 근동학의 학문적인 전제는 반영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보편타당한 신앙 생활의 법칙으로 보려는 입장은 무시되는 것 같다.

(2) 저항 A유형-성경이 오늘날의 특정 시대정신을 거부한다고 생각하며 성경의 이름으로 시대정신을 거부하는 입장. 예를 들면, 경건한 여호수아가 가나안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것처럼, 청교도들은 아메리카대륙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 이 경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주민들의 인권이나 생명권은 무시된다.

(3) 저항 B유형-오늘날의 시대정신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정신의 이름으로 성경을 거부하는 입장.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성전이나 헤렘에 대한 견해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며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 이 경우 여호수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교회의 전통은 무시된다.

(4) 회복의 읽기-그동안 해석자들이 가진 편견 등에 의해 잘못 해석되어온 성경을 구출하고, 후대 해석자들의 오해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성서의 지혜를 회복하

---

8 이것은 호렘, 힌트, 사우스게이트가 제시한 생태신학 혹은 생태해석학의 네 가지 유형에 영감을 얻어 재구성해본 것이다. 참조: David G. Horrell, Cherryl Hunt, and Christopher Southgate, *Greening Paul: Rereading the Apostle in a Time of Ecological Crisis*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0), 11-32.

고자 하는 입장.<sup>9</sup> 이 입장은 현대의 특정 시대정신과 성경 속 영감을 함께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만약 설득력 있는 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학계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함께 수용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지닌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러 현대적인 이슈에 대해 두 번째 입장이나 첫 번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적 이슈에 무관심하거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생각을 비기독교인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근거 없이 거부하면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와 복음에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때로는 반감을 품게 만들어 결국에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세 번째 유형은 교회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교회사에서 존경받던 인물 중에도 루터와 같이 여러 이유로 에스더서<sup>10</sup>나 야고보서<sup>11</sup>를 거부하기도 했던 이들이 있던 것을 보면, 성서의 특정 본문에 강조점을 두거나 어떤 본문들을 덜 중요시하는 태도가 전혀 수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겠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공인된 성서 본문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특정 본문을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대안적인 해석을 찾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본 논문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성서 해석자들이 추구해야 할 회복의 읽기(Reading of Recovery)이다. 이것은 기존의 성서에 대한 잘못된 혹은 위험한 이해로부터 성서를 구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안적인 해석

---

9 이것은 탈식민지 해석학, 페미니스트 해석학, 생태 해석학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3단계 작업, (1) 의심(Suspicion), (2) 문제 파악(Identification), (3) 새로운 메시지 추출(Retrieval)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참조: Norman C. Habel, "Introducing Ecological Hermeneutics," eds. Norman C. Habel and Peter Trudinger, *Exploring Ecological Hermeneutic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8), 1-8.

10 김성헌, "루터는 왜 에스더서를 싫어했는가?-에스더서에 대한 루터의 평가 재고-", 「신학논단」 96권 (2019년 6월), 71-93.

11 Martin Dibelius, *James: A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Jame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76) 서문 참조.

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단순히 성서를 고대 근동과 지중해의 문헌 가운데 하나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해석방법이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고전이나 고대사로부터 현대의 특정 이슈를 위한 메시지를 찾으려는 자세는 여러 고전학자들이나 몇몇 역사가들에게 경원시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성서를 하나님의 영감과 보편타당한 원칙을 담은 거룩한 책으로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

필자는 고대의 해석자들이 여호수아서를 자신들의 사고체계와 문화 속에서 잘못 해석하여 여호수아의 모든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논문을 시작한다. 대안적인 해석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이상적인 지도자로 보던 전통적인 견해를 의심없이 따르기 보다는 여호수아의 실수를 각 본문에서 찾아보는 작업을 시도해볼 것이다.<sup>12</sup>

## 2.2. 신언 선포 양식과 여호수아의 언행 관찰

여호수아의 실수를 발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신언 선포 양식 속의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 혹은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 예언서나 몇몇 오경의 자료와 같이 여호수아서에는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수 1:1)와 같이 신언 선포 양식이 종종 나타난다. כֹּה־אָמַר יְהוָה(코아마르 야훼/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로 시작하고 נֹאמַר יְהוָה(느움 야훼/야훼의 말이니라)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양식은 예언서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며 예언서 연구의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예언서에 기록된 여러 신탁(oracle)이 가진 일정한 형태의 시작 구문과 종료 구문은 예언자 혹은 편집자의 말이나 내러티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명시적으로 구분해준다.

12 이것은 신명기 역사서 혹은 신명기적 역사편집자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본 입장과도 일치한다. 신명기적 역사편집자는 대체로 유대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잘못된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선언선포 양식은 오경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라부샤인(Casper Labuschagne)에 따르면 오경, 특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양식은  $\text{אמר}$ (아마르/그가 말씀하셨다),  $\text{דבר}$ (디베르/그가 말씀하셨다),  $\text{קרא}$ (카라/그가 부르셨다),  $\text{צו}$ (찌바/그가 명령하셨다)의 네 가지 동사와 명사  $\text{דבר}$ (다바르/말씀)과 함께 사용되었다.<sup>13</sup>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sup>14</sup> 라부샤인은 선언양식 구문은 오경에서 이중 동심원적 패턴(double symmetric pattern)을 보여주며 오경의 중요한 구조를 형성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15</sup> 라부샤인의 이중 동심원적 패턴에 관한 주장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선언선포 양식이 성경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충분히 흥미로운 관찰이다.

다른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의해 반복될 때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옮겨지지 않고 변형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담이 그 아내 하와에게 옮긴 일을 들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에 부정사 독립형을 활용한 강조용법을 이용하여 “너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고 말씀하신 것과 달리, 아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창 3:3)하고 약화된 금지명령을 사용하여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다. 이 사례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사례가 된다.

여호수아 역시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자 혹은 군대장관의 지시를 백성들에게 전할 때 잘못 전했거나 잘못 실행한 부분이 있는 것 같

13 Casper J. Labuschagne, “The Pattern of the Divine Speech Formulas in the Pentateuch: The Key to Its Literary Structure”, *VT* 32/3 (1982), 268-296.

14 라부샤인의 견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Philip R. Davies and David M. Gunn, “Pentateuchal Patterns: An Examination of C. J. Labuschagne’s Theory”, *VT* 34/4 (1984), 399-406.

15 Labuschagne, 위의 글, 269.

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수행할 때 범한 것으로 보이는 실수들을 논증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의 내용을 어떻게 확장하거나 요약하거나, 변화를 주는지 보여주는 다음 몇몇 사례들을 통해 검토해보도록 한다.

### 1) 싸움의 목표(1장)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먼저 모세의 죽음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리며,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야 함을 상기시킨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러 절에 걸친 격려와 지침을 주신다.

	여호수아 1장 2절-9절 / 1장 10-15절
하나님의 말씀 (신언양식, 2·9절)	2 모세 나의 종이 죽었다. 이제 일어나 이 요단(יַרְדֵּן)을 건너가라. 너와 이 모든 백성은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여하는 땅으로 가라 / 3 네가 너의 발로 밟는 모든 장소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 주었다. / 4 광야와 이 레바논(הַרְבַּע)부터 큰 강과 유프라테스강, 하티들의 모든 땅까지, 또 해지는 쪽 큰 바다까지 너희의 경계가 되리라. / 5 너의 모든 생애 아무도 네 앞에서 감히 일어서지 못하리니, <sup>16</sup>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16 이 동사는 서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어근의 히트파엘 형태이다. 히트파엘은 보통 재귀용법으로 이해되어왔지만, 재귀용법은 히트파엘의 용례들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할 때가 많다. 최근의 연구 가운데 클라우스-피터 아담(Klaus-Peter Adam)은 히트파엘 동사가 겉으로 보이는 사회적 신분, 복장 등의 변화 혹은 위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사울이 야훼의 영이 임<sup>61</sup>하여 예언자 노릇을 할 때, 사울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예언자들이 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담이 제시하는 히트나베를 비롯한 여러 히트파엘 동사의 용례는 전통적인 견해인 재귀용법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그의 새 견해로는 설명이 되는 장점이 있다. Klaus-Peter Adam, "And He Behaved Like

	<p>6 용기를 가져라! 굳세어라! 너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네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 7 오직 용기를 내고 매우 굳세어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가르침<sup>17</sup>을 지켜 행하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기 위하여<sup>18</sup>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후략)</p>
<p>여호수아의 각색/명령 (10-15절)</p>	<p>10 진영 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 11 “양식을 준비하여라. 삼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을 얻기 위해 들 어갈 것이니라.” / (중략) 13 (요단동편 지파들에게) 너희는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야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 14 너희의 아내들, 어린이들, 가족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분배한 요단강 너머 이쪽 땅에 머무를 것이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채로 너희 형제들 앞에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후략)</p>

a Prophet Among Them,” (1 Sam 10:11b) The Depreciative Use of נָבִיא Hitpael and the Comparative Evidence of Ecstatic Prophecy”, *Welt des Orients*, 39/1 (2009), 3-57; Klaus-Peter Adam, “A (socio-)Demonstrative Meaning of the Hitpael in Biblical Hebrew”, *Zeitschrift für Althebraistik* 25-28 (2015), 1-23. ‘서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어근 נָבִיא가 히트파엘로 사용된 이 경우는 아담의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서지 않고 있다가 일어서는 상태(혹은 사회적/정치적 입장 변화)를 설명하는 단어로, 주로 적대하지 않던 인물/집단이 태도를 바꾸어 적대적인 태도로 일어서는 동작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 17 ‘토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뜻은 ‘가르침’이다. 이를 ‘율법’으로 번역하는 전통은 70인역과 신약성서에서 ‘노모스’라는 번역어를 사용한 것에서 유래한 것인데, 노모스(법)은 오경에서 법률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이야기 등의 부분을 아우르기에 부족한 용어이다. 다른 한편, 가르침은 창조에 대한 가르침, 홍수에 대한 가르침, 족장에 대한 가르침, 출애굽에 대한 가르침, 제사법에 대한 가르침 등 오경 속의 대부분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적합한 용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유대인 학자들뿐 아니라 유대인 학자들과 소통하는 기독교인 학자들은 토라에 대해 “법” 혹은 “율법”보다는 “가르침”이라는 번역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참조: Esther M. Menn, “Law and Gospel”, Darrell Jodock(Ed.) *Covenantal Conversations: Christians in Dialogue with Jews and Judaism* (Minneapolis: Fortress, 2008), 42-59.
- 18 개역성경에서는 7절하반부의 동사를 ‘행동하리니’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그릭어(Old Greek) 사본의 παράσις를 바탕으로 하는 NRSV, NIV 등 보편적인 영어번역본을 따라 번역한 것지만 히브리어 동사 תָּחַלְתָּ (타스킬/내가 통찰력을 주도록)의 어근인 \*skI 어근의 일차적인 의미는 지혜나 통찰력과 관련된 의미이고, ‘성공을 이룬다’는 의미는 다소 부차적인 의미라는 점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www.kci.go.kr

위의 표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된 약속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세와 함께하였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용기를 내며 굳센 자세를 가지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도움의 조건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가르침(토라)을 지키라는 것뿐이다.

흥미롭게도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땅을 차지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민족을 ‘학살’하거나 내쫓으라는 의도나 명령은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다. 또 7절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명령은 종종 율법의 엄격한 준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할 여지도 있다. ‘우로나 좌로나’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의 의미를 지닌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에 실패해서도 안되고, 반대로 땅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는 행위-예를 들면 불필요한 살육-도 해서 안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10-15절에서 여호수아는 후속조치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6절의 용기를 내고 굳세라는 격려의 말씀은 개인화하여 생략하였다. 대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한 요단강을 건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전술적인 지시, 예를 들면 (1) 양식을 준비하고, (2) 삼일 안에 진격할 것이라는 내용을 덧붙인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지파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지파도 ‘안식을 누리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든지 여호수아의 말에서든지 이 시점까지는 땅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 외에 어떠한 인종청소나 타민족을 내쫓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 2) 여리고 정복(2장-6장)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본문 중 하나는 여리고 정복과 관련된 2-6장이다. 독일의 고고학자 캐틀린 케년(Kathleen Kenyon)의 발굴 이후 여리고 정복에 관한 역사성의 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sup>19</sup> 6장 21절과 같이 여리고 안에 있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는 내용이 여러 주석 및 윤리적 문제를 불러 일으켜왔다.

본문이 가진 역사적, 주석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승일은 여리고 정복 본문을 실제 역사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사무엘하 6장 및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되는 하나님(혹은 신)이 새로운 도성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경축하는 의식과 관련시키는 등의 제의적 해석을 시도하였다.<sup>20</sup> 물론 여리고 사건이 역사가 아니라 의식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살육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년 하나님의 입성을 반복되는 제의를 통해 기념한다고 할 때 여리고 살육/정복을 포함한 폭력적인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 후대에 영속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더 큰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재고해보아야 한다. 고대 사회에서 제의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닌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고를 형성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강규성이나 라이트-볼링(G. Ernest Wright and Robert G. Boling)은 헤렘 개념을 진멸이 아닌 구별되거나 바쳐진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여리고 진멸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1</sup> 그러나 헤렘을 진멸하는 행

19 Kathleen Kenyon, *Digging Up Jericho* (London: Ernest Benn Limited, 1957).

20 강승일, “제의로서의 가나안 정복과 여리고 전투”, 『인문사회』 21, 10권 1호 (2019년 2월), 271-286. 강승일은 자신의 견해 뿐 아니라 다른 제의적 해석도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유월절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학자들(Hanson, Soggin), 7일 동안 여러 집단(군인, 제사장, 언약궤, 후방부대)이 번갈아가며 고대 여리고의 잔재를 돌아가면서 거행했던 의식으로 보는 학자(강사문) 등이 있으나 각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야훼께서 새로운 도성에 입성하는 것을 경축하는 의식과의 관련성을 역설한다.

21 강규성, “헤렘” 전쟁기사는 과연 진멸만을 말하는가?: 가나안 정복 기사(수 5-11장)를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89집 (2019년 4월), 1-25. G. Ernest Wright and Robert G. Boling, *Joshua* (AB 6; Garden City:

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거나 바치는 것으로 순화하여 이해할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는 분이신가’라는 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통적인 구약성서의 신학에 따르면 인신제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제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렘을 구별하거나 바쳐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어떤 더 나은 점이 있는지의 의문은 계속 남는다.

여리고 정복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여호수아 2장에서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는 내용이 소개된다. 라합의 말(9-11절)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여리고 주민들의 반응은 곧 벌어질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다. 여리고 주민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들었고 마음이 녹았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먼저 보낸 정탐꾼들을 잡아들이려 하거나, 라합과 같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해 먼저 적대적인 자세를 보여준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혼의 태도와는 구분된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위협한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왕 시혼의 행위는 고대의 탈리오 법(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따라 그들을 진멸한 행위가 일종의 정당방위로 이해될 여지가 있지만, 여리고 사람들의 경우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적대했다거나 선행되는 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전제할 근거가 없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며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할 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서 처음으로 타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아내는 것을 언급한다(3장 10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장의 약속과

---

Doubleday, 1982), 207.

명령 중에 타민족을 쫓아내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3장 10절은 여호수아가 자의적으로 덧붙인 구절로 볼 수도 있다.<sup>22</sup>

뒤따르는 여리고 사건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찾을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는 단 한번도 여리고 백성 진멸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여리고 점령과 관련한 야훼의 군대장관의 전쟁지침에는 헤렘에 대한 어떤 언급도 나타나지 않는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라는 표현이 나오며, 흑자는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은 ‘죽임’과 연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3</sup> 이는 흥미로운 주장이

22 다만 뒤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호수아서를 정경적인 관점에서 독립된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책들과의 맥락 속에서 읽는 경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타민족을 쫓아내는 것을 명령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복잡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한다.

오경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나 혹은 원하시는 것이 (1) 가나안 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인지, (2)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을 쫓아내신다는 것인지, (3) 이방민족을 진멸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창세기-민수기에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표현 중에 지배적인 표현은 (1)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다 혹은 ‘가나안 땅을 차지’ 하게 한다거나 (2)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을 (단순히) 쫓아낸다’ 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땅에서 원주민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23장 28-30절(히위, 가나안, 헷 족속을 조금씩 쫓아냄), 출애굽기 33장 2절(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출애굽기 34장 11절(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과 24절(이방 나라), 레위기 18장 24절(앞의 행위들로 더러워진 족속들)과 20장 23절(하나님께서 기증히 여기는 풍속을 따르는 족속), 민수기 32장 21절(그의 원수), 39절(아모리인)이 대표적이다. 이 본문들은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강제 이주)은 언급하지만, 최소한 그들을 살육하라는 내용은 암시하지 않는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 강제 이주 역시 잔혹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이를 현대 독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한편 필자와 비슷한 관철(창세기-민수기에는 가나안 민족 진멸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장식점이 최근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장석정, “신명기 7:1-5에 나타난 헤렘(Herem) 명령 다시 보기”, 『신학사상』 189집(2020년 6월), 47-75(특히 52-53을 보라). 필자는 장석정의 연구를 접하기 전에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음을 밝힌다.

또한 창세기-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거나 원주민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라는 언급들이 대부분이지만, 비교적 후대의 관점을 반영하는 신명기나 몇몇 신명기적 역사편집자가 보여주는 분위기는 약간 다르다는 점이 고려할 점이다. 이 점은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23 익명의 심사자의 주장으로 몇몇 본문(수 8:1; 21:44; 사 4:14; 7:14; 렘 29:21; 32:3-5, 28-30; 34:12)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지만,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은 항상 죽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사례에서 ‘손에 넘겨줌’은 노예로 삼는 다든지 식민지배, 군사적 승리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용되었다.<sup>24</sup>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표현이 간혹 죽임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여리고 성 건물, 그 왕과 용사들에 한정된 것이고 여성이나 아이들, 짐승들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호수아는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육을 포함한 헤렘 선포로 변조하였다. 여리고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투 직전에 갑작스럽게 여호수아의 입에서 처음 선포된 것이다(수 6:16-19). 마치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 전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맞으러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무책임한 서원을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남녀노소 백성들 뿐 아니라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헤렘, 17-18절)과 ‘하나님께 구별된 것’(코데쉬, 19절)으로 선포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일종의 제물봉헌 서원을 한 셈이 된다. 입다의 서원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의 여리고 헤렘 선포는 여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여호수아는 자의적 서원뿐 아니라 6장 26절에서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 서원까지 덧붙이고 있어서 비극을 극대화하고 있다.

여호수아의 자의적 서원이라는 부정적 면모는 여호수아서를 새롭게 읽고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비록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여호수아의 행동에

---

24 사사기와 열왕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결과 대신 식민지배나 압제로 결과가 나타났다.

대한 비평을 명시적으로 덧붙이고 있지는 않지만,<sup>25</sup> 여호수아의 사례는 한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저주와 자의적 서원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동아시아적인 배움의 한 방법인 타산 지석(他山之石)으로 여호수아서를 읽는다면, 여호수아의 잘못을 보면서 그 잘못과 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전기예언서의 한 부분인 여호수아서의 진짜 가르침이 될 수 있겠다.

### 3) 아이성 정복(7장-8장)

여호수아의 실패 사례는 아이성 정복에서도 계속된다. 겉으로 보기에 아이성 정복 실패 사건은 아간이 여호수아의 헤렘 서원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통하여 아간의 잘못을 찾아내고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았다. 전통적인 주석가들은 2차 정복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아간의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죄로 더럽혀진 백성들이 정결을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sup>26</sup>

그렇지만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근본적으로 여호수아가 성급한 자의적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야훼의 군대장관의 지침은 여리고를 헤렘시키는 것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여호수아 6장 2절에서는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준다’고 말하며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어쩌면 아간의 범죄는 근본적으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자의적 서원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실수

---

25 이러한 경향은 사사기속 입다의 서원이나 사무엘하 속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왕위 계승 이야기(삼하 11장-20장, 왕상 1-2장) 속에서 다윗의 행동이 계속 부정적인 모습들이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다윗을 명시적으로 비판하지는 않는다.

26 예: David M. Howard, *Joshua* (NAC 5; Nashville: B & H PubGroup, 1998), 187.

에서 유발된 것일 수 있다.

한편 여호수아의 군대와 비슷하게 전쟁 중에 승리를 위한 서원을 하고, 군대의 일부가 서원을 어긴 경우는 사무엘상 14장에서도 나타난다. 군대의 지도자였던 사울은 그날 저녁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24절)이라고 맹세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서원을 어겼고, 누가 서원을 어겼는지 찾는 과정에서 아간이 서원을 어긴 것이 발각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먼저 뽑히고 최종적으로 요나단이 범죄한 것으로 발각되었다.<sup>27</sup> 이때 요나단은 서원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보호 덕분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반면 아간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같이 돌에 맞아 죽임당하고 불로 태워졌다.<sup>28</sup> 지도자의 서원을 어긴 결과에 대한 처분을 비교해볼 때 여호수아와 사울 중 누가 더 나은 지도자인가? 이 질문은 관점에 따라 여러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쉽지 않은 질문이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상래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는 본 연구자와 다른 방법의 논증을 통하여 아이성 정복실패가 단순히 아간의 잘못 때문은 아닐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29</sup> 특히 김상래의 논문에 따르면 여호수아 7장 2-5절과

---

27 사무엘상 14장 24-46절 본문 속 제비뽑는 과정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박종수, 「이스라엘 종교와 제사장 신탁 - 제비뽑기의 신비 -」 (서울: 한들출판사, 1997), 95-114.

28 몰(J. Mol)에 따르면 구약성서에는 집단적인 유죄/책임(Collective Guilt/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본문(출 20:5; 예 5:7; 겔 18, 20)이 존재한다. Jurrien Mol, *Collective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A Description of Corporate Personality in Ezekiel 18 and 20* (Leiden: Brill, 2009) 참고. 그러나 베르만(Joshua A. Beraman)의 비평에 따르면 몰이 제시하는 사례들은 하나의 큰 집단이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집단이 그 결과에 따른 고통을 받는 사례들이며, 한 개인이 법규를 위반했다고 전체 조직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아간의 사례 외에 다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도리어 개인의 법규위반은 범인 혼자 처벌받는 이야기들(레 24:10-12; 민 15:32-35; 삼하 6:7)이 지배적이며, 이러한 분위기는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여러 고대 근동의 법전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Joshua A. Beraman, "The Making of the Sin of Achan (Joshua 7)", *Biblical Interpretation* 22/2 (2014), 116.

29 김상래, "아이 성 정복 실패가 진정 아간 때문 만인가? 여호수아 7장 2-5절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8권 4호(2012년 12월), 72-95; Hawk, 윗글, 113; Trent C. Butler, *Joshua* (WBC 7; Waco: Word Books, 1983), 79 등.

여호수아 8장 1-2절에서 여호수아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아이성 점령을 위한 첫 번째 시도에서 여호수아는 여러 부족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첫 번째, 아이와의 첫 번째 싸움 과정 중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묻거나 상의하지 않았다. 둘째, 하나님도 전투에서 아무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신다.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이성과 그 땅을 수여한다는 선언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도 언약궤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에게 상의하지도 않았다. 셋째, 여호수아는 군사 지도자로서도 흠을 보인다. 정탐꾼들을 보냈지만, 여기에 정탐꾼들의 이름도 없다. 정탐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지만, 임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상래는 몇 가지 특징을 덧붙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주도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정탐꾼을 파송한 뒤 돌아온 정탐꾼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 외에 전쟁 개시나 수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전략 제안을 따르기까지 한다. 이것은 주도적으로 전쟁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던 이전의 모습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다.<sup>30</sup> 뿐만 아니라 김상래의 여호수아 7장 2-5절과 다른 주변 본문과의 비교는 “일찍 일어나지 않은 장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리고 주변을 돌던 마지막 일곱째 날이나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실패의 원인을 색출할 때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음이 강조되고 있지만, 1차 정복 때 여호수아는 장면 뒤로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는다.<sup>31</sup> 김상래의 관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 하나는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은 장군 여호수아”에 대한 관찰이다. 여호수아 7장 2-5절을 다른 본문들과 비교할 때 여호수아는 항상 백성들과 함께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싸우러 올라간 내용이 없다.<sup>32</sup> 이리

---

30 김상래, *윗글*, 78-79, 87-88; Butler, *윗글*, 79 또한 참조.

31 김상래, *윗글*, 81-82.

32 윗글, 84-87.

한 관찰은 아이성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아간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부족한 면모도 종종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아이성 전투와 관련한 부분에서 본 연구자가 해결하기 다소 어려운 본문은 8장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오직 전리품과 가축만을 차지하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사역)하는 부분이다. 이 구절은 1절의 “아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라는 신언선포 양식과 함께 나타나며, 신언선포 양식과 함께 나타나는 첫 번째 헤렘 암시 구절이기 때문에 꼭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필자는 세 가지 설명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가능성으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을 아이와 그 왕에게 할 것이라고 하는 구절 속에서 여리고와 아이를 성 속에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과 아이 ‘성’, 즉 성채 건물만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을 듯하다. 하나님의 도움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아이 성도 건물이 무너지게 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앞선 적대행위에 대한 보복행위일 경우 진멸은 고대적 관습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삼상 15장)은 갓 출애굽 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는 중에 그들을 공격한 사건(출 17:8-16; 신 25:17-19)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아이와의 첫 번째 싸움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아이 사이에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었더라도, 첫 번째 싸움의 패배로 적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죽임 당하면서 이스라엘과 아이 사이에 원한 관계가 생겨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보복행위를 정당화하게 되었을 수 있겠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 여러 역사비평가들이 설명하는 방식과 같이 8장 2절이 후대의 첨가일 수 있다는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설명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 4)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체결 및 보호를 위한 싸움(9장-10장)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조약을 체결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옳은 것이었는지 아닌지,<sup>33</sup> 혹은 아니면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었는지 아닌지 여러 논쟁을 초래한다. 9장 1-2절은 헛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다는 사실을 보도한다.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이어지는 9장의 내용에서 다른 가나안 지역 거주민들과 구별되는 기브온 사람들의 대처 방법에 주목한다. 기브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적대적이지 않았으며, 약간의 속임수를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자 했다는 것이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조약체결이 아무 문제 없는 것인지,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으며, 김성수의 논문<sup>34</sup>이 이를 비교적 잘 정리해주고 있다.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체결에 앞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기브온과의 조약을 지지하셨을지 거부하셨을지에 대한 여부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큰 맥락에 볼 때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

33 다수의 주석가들은 9장 14절 후반절을 기브온과 조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수(혹은 교만)를 정죄하는 절이라고 해석한다. Butler, 윗글, 103; Richard S. Hess, *Joshua: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6;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6), 180; 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1), 157.

34 김성수, “만약 이스라엘이 야훼께 물었다면”: 기브온 사건(여호수아 9장)에 나타난 이방인의 진멸과 구원”, 『성경과신학』 88집(2018년 10월), 23-60.

약체결을 지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 첫째, 가나안 남부지방의 왕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브온을 향하여 싸우러 간다(수 10:1-5). 이때 하나님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의 화친조약을 나쁜 것으로 여겼다면 기브온을 그냥 내버려두기만 해도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기브온은 남부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결정은 기브온을 돕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기브온을 도우러 간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8절)라며 승리를 약속하였다. 둘째, 하나님은 기브온을 돕는 전쟁을 그냥 용기만 주며 도운 것이 아니라 자연이적(큰 우박덩이를 내림)을 통하여 도울 만큼 적극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sup>35</sup>

한편, 여기서도 여호수아는 현대 해석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충동적인 선포를 덧붙이고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충분한 군사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와 달이 멈추라는 것이다(12절). 후대의 편집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사건이라고 기록하지만(14절), 아마도 그날 해와 달이 실제로 잠깐 멈췄다고 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의 신체적 컨디션이 평소보다 더 좋아서 하루를 길게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성서 독자들에게 보다 와닿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전투를 승리로 마치고 진영으로 돌아온다. 여기까지가 8절에 약속된 전투에서의 승리 약속과 관련된 단락이다. 이어서 16절부터 43절까지는 시간이 지난 뒤 남부 가나안 지역의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있다는 보고를 들은 뒤에 여호수아가 새로 시작한 토벌전

35 그 외에도 여호수아서 바깥의 본문이지만, 사무엘하 21장 1-9절의 기근 해결을 위한 과정들 역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대하심을 드러내는 본문이 된다.

쟁 장면을 그리고 있다. 왕들을 먼저 잡아서 처형하는데(16-27절), 이 장면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침은 부재한다. 28절부터 각 성읍을 진멸하는 장면이 기술되는데, 여기서 “야훼께서 X성읍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넘겨주신지라”(30절, 32절)하는 기술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속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사사기에 빈번하게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적의 손에 파셨다 혹은 넘기셨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적에게 이스라엘을 진멸할 살인면허를 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일시적으로 압제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10장에서 하나님이 각 성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준 것도 전쟁에서 우세를 차지하거나, 사경 속의 약속에 근거해 생각해볼 때 성읍을 점령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로 하는 자격 부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각 성읍의 사람들을 쳐서 “호흡이 있는 모든 지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40절 상반절)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중요한 권면과 거리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 언급되는 땅을 차지하거나 원주민들을 내쫓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서만 볼 때 앞에서 살펴본 어디에도 신언선포 양식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거나 인신제사로 드리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한 적이 없는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40절 하반절)이라고 기록한다. 10장의 나머지 절과 구별되는<sup>36</sup> 40-43절의 요약은 신

36 Woudstra, Hawk 등의 주석은 40-43절을 앞절과 단락을 분리해서 주석하고 있다.

명기적 역사 편집자의 작업으로 보이는데, 이 후대 편집자의 작업은 장석정 이 논증하는 것과 같이 실제 역사보다 후대의 신학적 입장을 반영한 기술로 보인다.<sup>37</sup>

##### 5) 제국적 질서에 대한 항거(11장)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조약 체결 및 이스라엘과 남부지역 왕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결과에 관한 소식을 전해들은 가나안 북부지역의 왕들은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뭉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 여호수아 11장, 특히 6-9절에서는 하솔왕 야빈 및 그와 동맹한 북부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이스라엘 및 여호수아와 싸우는 장면이 기술된다. 이스라엘의 적 군대의 숫자는 무척 많았다고 기술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은 본 논문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된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 시간 즈음에 이스라엘의 면전에서 내가 그들 모두를 창에 찔린 자들로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의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을 것이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우리라”(사역)고 하였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와 함께 한 모든 싸울만한 백성과 함께 메롬 물가에 있는 적들을 기습하여 덮쳤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격파하고 추격에 추격을 거듭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태웠다(8-9절). 다른 여호수아서의 본문과 함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사람들과 동물들에 대한 하나님에 의한 폭력(Divine Violence)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노력했다.

---

37 장석정, 윗글.

예를 들면, 크리치는 여호수아 10-12장을 갓월드(Norman Gottwald)의 사회학적인 성서해석의 관점과 초기 이스라엘 정착에 대한 가설<sup>38</sup>을 사용하여 가나안 남부와 북부 왕들과의 싸움은 착취에 기반을 둔 왕정에 저항하는 봉기한 농노들의 혁명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민족사와 합쳐지게 되었다는 가정 아래 읽는다.<sup>39</sup> 10-11장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왕권의 거절과 패배라는 것이다. 크리치는 동시에 혁명의 윤리 문제를 논의하면서, 헤렘 혹은 진멸의 법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학적인 역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학적 의미를 위해 읽혀야 한다”<sup>40</sup>고 주장한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끔찍한 묘사와 관련해서는 동물에게 잔인한 행위이지만, 말이 중요한 무기 체계로 사용되었던 고대 세계의 정황을 고려하면 단순한 동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탱크나 폭격기”와 같은 공포스러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sup>41</sup> 크리치와 비슷한 방식으로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도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견해를 제시하며 소책자에 해당하는 분량(본문만 65페이지 분량)의 단행본을 출판했다.<sup>42</sup> 브루그만 역시 갓월드의 견해를 바탕으로 여호수아 11장의 전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대항하는 싸움에 참여(Divine Presence)하신 것으로 해석한다. 북부왕들은 말과 철병거를 가지고 억압과 착취 구조를 강화하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대변하는 존재들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북부왕들과의 싸움을 명령하시는 것과 싸움 중간에 이스라엘을 위해 개입한 것은 억압과 착취의 사회구조를 깨뜨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38 Norman Gottwald, *The Hebrew Bible: A Socio-Literary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272-276. 이 부분은 갓월드의 사회 혁명 모델을 기술하는 부분이다.

39 크리치, 윗글, 158-159.

40 윗글, 160.

41 윗글, 161.

42 Walter Brueggemann, *Divine Presence amid Violence: Contextualizing the Book of Joshua* (Eugene: Cascade, 2009).

### 3. 통시적 연구를 통한 접근법

앞서 관찰한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언행 관찰은 정경적 방법으로 여호수아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여호수아서의 대부분의 진멸 사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수아의 자의적 실수에 따른 것으로 보거나, 이스라엘의 원한관계에 따른 보복이나 혹은 제국주의와 억압적 질서를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까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설명과 하나님이 원래 인종청소를 바라시지 않았다는 해석은 앞의 각주 22번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과 같이 사경의 대부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든지 가나안 민족들을 단순히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하는 본문과도 비교적 잘 조화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 여호수아를 독립된 책이 아니라 좀더 종합적이고 통시적으로 읽으려할 때, 혹은 각주 6번에서 언급한 홍국평이 제안한 세 가지 성경 읽기 방법간의 대화를 시도하려 할 때 몇몇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분명히 사경을 비롯한 더 많은 본문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적 해석을 지지하지만, 신명기 7장과 20장은 가나안 민족들에 대하여 상당히 다른 관점과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신명기 7장 및 20장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다.

보통 통시적 관점의 해석이든지 공시적 관점의 해석이든지 특정 본문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상당히 배치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특정 성경본문의 다름을 인정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 본문을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큰 원칙을 세우는데 배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도 한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로부터 열왕기까지를 신명기적 역사편집으로 읽는 것이 통시적 접

근법을 사용하는 학계에서 지배적인 관점<sup>43</sup>임을 고려하면 신명기는 사경(창세기-민수기)보다도 여호수아서의 해석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다. 따라서 신명기 7장과 20장이 보여주는 관점이 사경의 관점과 차이난다는 이유로 마냥 무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꼭 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여호수아서를 신명기 배경을 바탕으로 읽는 차일즈(B. S. Childs)는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준 것을 신명기 20장 13-14절을 어긴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sup>44</sup> 신명기 20장 13-14절은 토라에서 인종청소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신명기 20장 13-14절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자행되는 인종청소와 다르게 읽을 여지가 있다. 먼저, 신명기 20장 14절에서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의 목숨을 거두지 말고 탈취물(בָּבֶשֶׁת)로 삼으라는 명령은 최소한 전쟁할 능력이 없는 민간인까지 학살하지는 말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읽을 여지가 있다. 최소한 여성, 어린 아이, 가축들의 목숨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이 여기에 나타난다. 한편 여전히

43 마틴 노트가 바벨론 포로기의 어느 역사가에 의해 편집된 신명기 역사서(여호수아기,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라는 개념을 제안한 이래, 노트의 이론은 몇몇 변화를 거치기도 하고 이를 거부하는 그룹의 학자들도 있지만, 독일어권과 영미권에서 신명기 역사서 혹은 신명기적 역사편집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Martin Noth, *Das Buch Josua* (HZAT 7; Tübingen: J.C.B. Mohr, 1938); Rudolf Smend, "Das Gesetz und die Völker: ein Beitrag zur deuteronomistischen Redaktionsgeschichte",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Gerhard von Rad zum 70 Geburtstag*, ed. Hans Walter Wolff (Munich: Kaiser Verlag, 1971), 494-509. 이 저작의 영문번역본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Rudolf Smend, "The Law and the Nations: A Contribution to Deuteronomistic Tradition History", *Reconsidering Israel and Judah: Recent Studies o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ed. Gary N. Knoppers and J. Gordon McConville (Sources for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y 8; Winona Lake: Eisenbrauns, 2000), 95-110; Frank M. Cross, "The Themes of the Book of Kings and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74-89; Richard D. Nelson, *The Double Redac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heffield: JSOT Press, 1981); 이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14권 3호(2008년 9월), 67-86; 이은우, "마틴 노트와 그 후계자들이 재고해야 할 문제에 관하여 - 여호수아 1장 1-9절의 본문과 문서의 역사 연구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집(2020년 4월), 41-70. 그러나 신명기 역사서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면, Howard, 윗글; Hess, 윗글.

44 Brevard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249-50.

신명기 20장 13절이 민간인 남성은 학살해도 된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대표적 한글 번역인 개역개정은 13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죽이고.” 그런데 여기서 남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쿠림으로서 보통 수컷 혹은 남성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보통명사 자카르와는 다른, 수동분사와 비슷한 형태로 사용되어 있다. 직역하면 ‘기억될’(존재)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이 단어가 만약 군인명부에 기재되어 징집된 군인들, 즉 전시할 경우 국가나 공동체에 의해 기념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죽이고”라는 번역은 수정될 여지가 있다. 칼날로 쳐서 죽이는 행위가 군인명부에 등재된 군인들만을 향한 것이라면, 아마도 민간인 남성도 진멸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신명기 20장의 재해석과 별개로 장석정은 역사비평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신명기 7장과 20장이 형성된 후대의 상황과 이데올로기가 헤렘에 대한 명령을 형성한 것이며, 이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력있게 주장한다. 이는 신명기 7장과 20장의 헤렘 명령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의 가나안 정착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을 기원전 7세기의 관점에서 성찰함으로서 좀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중에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sup>45</sup> 만약 장석정의 연구를 바탕으로 신명기 7장과 20장이 여호수아서의 대부분의 부분이 이미 기록된 뒤에 집필되었다거나, 여호수아서에서 헤렘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읽힐수 있는 몇몇 구절들이 7세기에 신명기 7장 및 20장과 함께 추가된 부분이라고 가정한다면 필자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단서가 제공되는 셈이기도 하다.

---

45 장석정, 윗글.

장석정의 설명을 좀더 보충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7세기말 유다의 영토는 남쪽경계가 브엘세바(예루살렘에서 걸어서 대략 이틀거리), 북쪽경계가 게바(예루살렘에서 걸어서 대략 만나질 거리)로 무척 작았다. 외곽 지역(peripheral area) 영토는 모두 상실하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거주지역의 중심지(center)인 중앙산지 일부만이 남은 상황이었다. 다양성을 갖춘 외곽지역과 달리, 남은 영토의 인구구성은 야훼신앙을 중심으로 종교적/혈통적 통일성이 높았을 것이며 이방인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요시야 시대의 유다는 국가의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고,<sup>46</sup> 예루살렘 왕정과 중앙 성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 성소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유다의 모든 지역에서 하루-이틀 간의 여행 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성소의 필요성이 떨어지기도 했을 것이다. 앗시리아나 바빌로니아의 잠재적인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방인 및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신명기를 바탕으로 하는 요시야 개혁이 위기상황 속에서 자기정체성 강화, 경제적 실리, 안보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신명기 7장과 20장의 규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은 기존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내쫓고 죽이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나라의 문을 다른 민족에게 열어 잠그는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여호수아서만을 통한 정경적 관찰이나 신명기까지 고려한 통시적 연구를 통한 접근법 모두 제각각의 방식으로 여호수아서 속 폭력

46 예를 들면 신명기 법에서는 다른 이들을 형제나 자매로 부르며 혈육관계임을 강조한다. 이는 8세기 말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유민들과 남유다 거주민들 간의 사회통합을 위해 족장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가 한 사람의 후손인 형제 자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다.

을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난점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특히 헤렘에 대해 필자의 정경적 관찰에서는 여호수아 개인의 잘못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반면 신명기적 역사편집을 고려한 통시적 접근방법을 좀더 따른다면 헤렘사건이 신명기사가의 편집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sup>47</sup> 어떤 측면을 강조할 지에 대해서 개별 연구자나 신앙/학문 전통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릴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열린 결론을 내린다. 두 가지 방법을 별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연구하여 다양한 교단적, 신학적 입장을 가진 연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탐구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본 논문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학자들의 토론을 통하여 이 문제가 좀더 논의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4. 결론

이 논문에서 제안된 여호수아의 새로운 읽기는 교회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가르치며 존중하는 여호수아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무척 조심스러운 것이다. 비록 사람인 여호수아를 비판하고 낮추지만 이로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공헌 가능성이 있는 읽기이며, 당장 강단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구실과 학교 강의실에서 조심스럽게 검토해볼

---

47 이 부분 논의는 익명의 심사자의 통찰력있는 질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의 개인적인 결론은 헤렘은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의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만, 몇몇 본문에서는 신명기적 역사편집자의 편집(수 10:13-14; 10:40-43)이 영향을 끼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이것은 잠정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여호수아 본문의 발달사는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입장 정리를 위해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가치가 있겠다.

여호수아의 실수 가능성은 본문을 꼼꼼히 살필 때 단서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약의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여호수아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언급되지 않는 의외성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첫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인하여 인종청소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다윗 조차도 그가 흘린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여호수아의 전쟁범죄 및 분별없는 서원/발언까지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전체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아시아의 배움의 방법인 타산지석은 동아시아의 신앙인들로 하여금 나쁜 사례를 통해서도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갔던 여호수아의 삶이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헌신적이었던 측면도 있지만, 실수와 부정적인 요소도 함께 있음을 찾아냄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실수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면, 여호수아서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배움의 수단이 될 것이다.

## 5. 참고문헌

강규성, “헤렘 전쟁기사는 과연 진멸만을 말하는가?: 가나안 정복 기사(수 5-11장)를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89집 (2019년 4월), 1-25.

강승일, “제의로서의 가나안 정복과 여리고 전투”, 『인문사회21』 10권 1호 (2019년 2월), 271-286.

www.kci.go.kr

- 김상래, “아이 성 정복 실패가 진정 아간 때문 만인가? 여호수아 7장 2-5절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8권 4호(2012년 12월), 72-95.
- 김성수, “만약 이스라엘이 야훼께 물었다면”: 기브온 사건(여호수아 9장)에 나타난 이방인의 진멸과 구원”, 「성경과신학」 88집(2018년 10월), 23-60.
- 김성언, “루터는 왜 에스더서를 싫어했는가? -에스더서에 대한 루터의 평가 재고-”, 「신학논단」 96집(2019년 6월), 71-93.
- 박종수, 「이스라엘 종교와 제사장 신탁-제비뽑기의 신비-」(서울: 한들출판사, 1997).
- 방기민, “하나님의 싸움’ 모티프 연구로의 초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집(2020년 4월), 7-40.
- 이은우, “마틴 노트와 그 후계자들이 재고해야 할 문제에 관하여 - 여호수아 1장 1-9절의 본문과 문서의 역사 연구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집(2020년 4월), 41-70.
- 이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14권 3호(2008년 9월), 67-86.
- 장석정, “신명기 7:1-5에 나타난 헤렘(Herem) 명령 다시 보기”, 「신학사상」 189집(2020년 6월), 47-75.
- 제롬 F. D. 크리치, 「여호수아」(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 홍국평, “책임 있는 해석학을 위한 제언”, 「Canon&Culture」 6권 2호(2012), 109-135.
- Adam, Klaus-Peter, “And He Behaved Like a Prophet Among Them.” (1 Sam 10:11b) The Depreciative Use of **נִבֵּא** Hitpael and the Comparative Evidence of Ecstatic Prophecy”, *Welt des Orients* 39/1 (2009), 3-57.
- Adam, Klaus-Peter, “A (socio-)Demonstrative Meaning of the Hitpael in Biblical Hebrew”, *Zeitschrift für Althebraistik* 25-28 (2015), 1-23.
- Berman, Joshua A., “The Making of the Sin of Achan (Joshua 7)”, *Biblical Interpretation* 22/2 (2014), 115-131.
- Brueggemann, Walter, *Divine Presence amid Violence: Contextualizing the Book of Joshua* (Eugene: Cascade, 2009).
- Butler, Trent C., *Joshua* (WBC 7; Waco: Word Books, 1983).

- Childs, Brevard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 Cline, Eric H., *1177 B.C. The Year Civilization Collaps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Cross, Frank M., “The Themes of the Book of Kings and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74-89.
- Davies, Philip R. and David M. Gunn, “Pentateuchal Patterns: An Examination of C. J. Labuschagne’s Theory”, *VT* 34/4 (1984), 399-406.
- Dibelius, Martin, *James: A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Jame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76).
- Gottwald, Norman, *The Hebrew Bible: A Socio-Literary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 Habel, Norman C., “Introducing Ecological Hermeneutics”, eds. Norman C. Habel and Peter Trudinger, *Exploring Ecological Hermeneutic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8), 1-8.
- Hawk, L. Daniel, *Joshua* (Berit Olam: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0).
- Hess, Richard S. *Joshua: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6;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6).
- Horrell, David G., Cheryl Hunt and Christopher Southgate, *Greening Paul: Rereading the Apostle in a Time of Ecological Crisis*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0).
- Howard, David M., *Joshua* (NAC 5; Nashville: B & H PubGroup, 1998).
- Hubbard, Robert L., *Joshua* (NIVAC;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9).
- Kenyon, Kathleen, *Digging Up Jericho* (London: Ernest Been Limited, 1957).
- Labuschagne, Casper J., “The Pattern of the Divine Speech Formulas in the Pentateuch: The Key to Its Literary Structure”, *VT* 32/3 (1982), 268-296.
- Menn, Esther M., “Law and Gospel”, Darrell Jodock(Ed.) *Covenantal Conversations: Christians in Dialogue with Jews and Judaism* (Minneapolis: Fortress, 2008), 42-

- Mol, Jurrien, *Collective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A Description of Corporate Personality in Ezekiel 18 and 20* (Leiden: Brill, 2009).
- Nelson, Richard D., *The Double Redac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heffield: JSOT Press, 1981).
- Noth, Martin, *Das Buch Josua* (HZAT 7; Tübingen: J.C.B. Mohr, 1938).
- Smend, Rudolf, "The Law and the Nations: A Contribution to Deuteronomistic Tradition History", *Reconsidering Israel and Judah: Recent Studies o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ed. Gary N. Knoppers and J. Gordon McConville (Sources for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y 8; Winona Lake: Eisenbrauns, 2000), 95-110. 원제 Smend, Rudolf, "Das Gesetz und die Völker: ein Beitrag zur deuteronomistischen Redaktionsgeschichte",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Gerhard von Rad zum 70 Geburtstag*, ed. Hans Walter Wolff (Munich: Kaiser Verlag, 1971), 494-509.
- Weippert, H., "Die "deuteronomistischen" Beurteilungen der Könige von Israel und Juda und das Problem der Redaktion der Königsbücher", *Biblica* 53 (1972), 301-339.
- Woudstra, Marten H., *The Book of Joshua*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1).
- Wright, G. Ernest and Robert G. Boling, *Joshua* (AB 6, Garden City: Doubleday, 1982).

검색어

여호수아서

인종청소

헤렘

현대 해석학

회복의 읽기

## A Reading of Recovery for an Ethical Interpretation of Joshua Herem Passages

Ki-Min Bang

Kangnam University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way to interpret Joshua herem passages today. The book of Joshua has led to a history of problematic biblical receptions that justify ancient and modern genocides. Its nuance, advocating for genocides and massive killings in the name of God, has challenged many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alike. It has also become an obstacle to the spread of the Gospel.

For this purpose, this paper uses contemporary hermeneutical research methods, especially ‘reading of recovery’ (Horrell, Hunt, and Southgate, 2010). By comparing God’s speeches with Joshua’s speeches and practices, a reader of the book of Joshua finds that Joshua committed many mistakes.

www.kci.go.kr

Case studies on the selected texts in Joshua (chapters 1, 2-6, 7-8, 9-10, and 11) demonstrate that God has not spoken of killing all the Canaanite people. However, Joshua and the people of Israel probably misunderstood God's commandments and then mistakenly killed indigenous people.

An alternative reading of Joshua suggested in this paper may provide an interpretation that prevents justifying genocides in the name of God. Therefore, it could extend an invitation to those who have been disturbed by the justification of killings back into the Christian community.

## Keywords

the Book of Joshua

Genocide

Herem

Contemporary Hermeneutics

Reading of Recovery

- 투고일: 2020년 12월 31일
- 심사일: 2021년 2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2월 18일

[www.kci.go.kr](http://www.kci.go.kr)